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ly 2025 Issue | Vol. 47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트럼프 관세 실망 속 다변화된 무역 관계 촉구 — *page 1-2*
- 법무부: 대통령, 투자 촉진 위해 세제 혜택 · 전기 요금 할인 제공 가능 — *page 2-3*
- 기후 피해 세금, 프리미엄 항공 여행에 부과 검토 — *page 3-4*
- 필리핀 노동부, 기업에 임금 왜곡 시정 촉구 — *page 5*
- CREATE 법에 따른 세제 혜택 대상 프로젝트, 1.5조 페소 돌파 — *page 5-6*
- SEIPI: 전자제품 수출 전망 악화 — *page 6-7*
- 수표 발행에 대한 새로운 규정 엄격히 시행 중 — *page 7-8*

UPCOMING EVENT

- [July 30, 2025] First Grand Tri-Continent Golf Challenge —*page 9*

트럼프 관세 실망 속 다변화된 무역 관계 촉구

July 13 , 2025 | Chloe Mari A. Hufana | BusinessWorld

미국이 20%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해, 필리핀은 오는 주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결과와 관계없이 아세안, 중국, 유럽연합(EU)과의 무역 관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 학자가 밝혔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delivers remarks on tariffs in the Rose Garden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April 2, 2025. — REUTERS

세인트 베니엘대학에서 외교학을 강의하는 조슈에 라파엘 J. 코르테즈는,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필리핀이 대체 무역 파트너들과의 거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새로운 관세는 4월 초 필리핀에 처음 부과된 17%보다 높은 수준이다.

코르테즈는 메신저 채팅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이 관세 인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웃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오랫동안 20~30% 수준에 머물러 있던 무역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제는 회원국들이 서로 간의 무역을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20%의 관세율 하에서는 필리핀 수출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우며, 경쟁국과의 관세 차이가 줄어든 만큼 필리핀으로의 공장 이전 유인도 약화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코르테즈는 워싱턴 회담을 앞두고, 협상이 관세 철회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마닐라가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여전히 필리핀의 최대 교역국이며, 미국은 세 번째다. 하지만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은 양국 간 더 깊은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코르테즈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더 강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는 여전히 중국과의 갈등의 원천으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선박 간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베이징과 마닐라 간의 관계는 수년 내 최악의 상태에 있다.

관세 불확실성은 아세안 경제 통합의 시급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코르테즈는 "외부 파트너들과의 관세 인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아세안 회원국들이 다시 한 번 서로 간의 무역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 주요 회원국들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으며, 베트남은 4월에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코르테즈는 또한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유럽연합(EU)을 잠재적인 대안 경제 파트너로 지목했다. EU는 필리핀의 네 번째 교역 상대국이자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 공급처이다.

그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EU와 우리가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nt. page 2]*

트럼프 관세 실망 속 다변화된 무역 관계 촉구

[Cont. from page 1]

코르테즈에 따르면, 이번 달 워싱턴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이달 말 예정된 국정연설(SONA)을 앞두고 외교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는 단순히 그가 필리핀 외교정책의 최고 설계자로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그의 정권이 국제 규범과 기준을 얼마나 준수하려 하는지도 나타낼 수 있다" 고 말했다.

워싱턴과의 협상이 성공할 경우, 마닐라가 개방 시장을 지향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워싱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시각도 일부 존재하지만, 국가로서 자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사안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 그것을 재협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주저 없이 사용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주 보도에서 마리아 테레사 P. 라사로 외교부 장관이 두 정상 간 첫 회담이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라사로 장관은 로이터에 이번 주 워싱턴으로 향하는 필리핀 대표단이 새롭게 부과된 관세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사안을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에 이번 회담이 7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필리핀 정부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이 7월 20일부터 22일까지라고 발표했다.

한편, 미국의 2024년 대(對)필리핀 상품 무역 적자는 49억 달러로, 2023년 대비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7/13/684916/diversified-trade-ties-urged-in-face-of-trump-tariff-letdown/

법무부: 대통령, 투자 촉진 위해 세제 혜택 · 전기 요금 할인 제공 가능

July 14 , 2025 | Joel R. San Juan | BusinessMirror

President Ferdinand R. Marcos Jr.

필리핀 법무부(DOJ)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이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 전기 요금 할인 및 기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8일 자로 발행된 7쪽 분량의 법률 의견서에서 헤수스 크리스핀 레물라 법무부 장관은, 선호하는 민간 기업에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레물라 장관은 "판례는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이 부당한 특혜나 개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권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특권을 부여하거나 책임을 부과할 때 유사한 상황과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조항은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률을 금지하지 않으며, 그러한 집단 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집단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구별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허용된다" 고 덧붙였다.

이 법률 의견은 재무부 장관이자 재정 인센티브 검토위원회(FIRB) 의장인 랄프 렉토 장관의 요청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이는 1997년 국가내국세법(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 또는 세법의 제301조에 따라 대통령이 민간 부문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예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의 해석과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세법 제301조는 특히 대통령이 "이 법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구성, 기간 또는 활용 방식을 수정하거나, 정의된 개발 전략에 따라 매우 바람직한 프로젝트나 특정 산업 활동에 적합한 재정적 및 비재정적 지원 패키지를 설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목적이거나, FIRB의 권고에 따라" 가능하다.

2025년 2월 24일 및 5월 7일 자 서한에서, 렉토 장관은 한 민간 기업이 필리핀경제구역청(PEZA)에 500억 페소 이상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등록 및 세금 인센티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Cont. page 3]

법무부: 대통령, 투자 촉진 위해 세제 혜택 · 전기 요금 할인 제공 가능

[Cont. from page 2]

해당 기업은 또한 전기 요금 및 송전 비용 할인, 수자원 다변화, 변전소 설치 및 건설 등의 비재정적 지원도 요청했다.

렉토 장관은 이 프로젝트가 "새롭고 전례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FIRB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재정적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DOJ의 법률 검토를 전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렉토 장관은 또한, FIRB의 권고가 없어도 대통령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재무부의 입장이라고 DOJ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레물라 장관은 재무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FIRB의 사전 권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세법 제301조에 따라 대통령이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에는 FIRB가 판단한 바—즉, 어떤 프로젝트가 '매우 바람직한(highly-desirable)' 것으로 간주되는지, 인센티브의 최대 수준은 얼마인지, 수혜 기업에 부과할 성과 목표는 무엇인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OJ는 렉토 장관의 의견에 동의하며, 대통령이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비재정적 인센티브로서 전기 요금 할인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DOJ는 아울러, 기업들에 대한 특혜로 인해 공정 경쟁과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FIRB가 인센티브 관련 결정을 내릴 때 「공정경쟁법(RA 10667)」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레물라 장관은 "정부가 자격을 갖춘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간의 일종의 협약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협약은 반드시 반(反)경쟁적이라고 간주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Image credits: AP/Aaron Favila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7/14/prez-may-grant-perks-to-select-investors/

기후 피해 세금, 프리미엄 항공 여행에 부과 검토

July 14 , 2025 | Business Snippets—Marianne Go | The Philippine Star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항공 산업 관련 조치는, 다른 국가들의 지지와 실행력을 얻을 경우 필리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글로벌 연대 분담금 태스크포스(GSLTF)의 지지를 받는 8개국 연합이 퍼스트 클래스 및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그리고 개인 전용기 운항에 대해 기후 피해세(climate damage tax)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IATA는 전 세계 항공교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약 350개 항공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이번 세금 제안은 항공기 배출가스로 인한 기후 피해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해당 조치를 주도하는 8개 국가는 프랑스, 케냐, 바베이도스, 스페인, 소말리아, 베냉, 시에라리온, 앤티가 바부다이다.

프리미엄 항공 여행에 대한 세금은 항공 부문이 기후변화 대응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특히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GSLTF는 바베이도스, 프랑스, 케냐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2023년 11월 COP28 회의에서 출범했다. 이 연대 분담금 연합에는 앤티가 바부다, 콜롬비아, 덴마크, 지부티, 피지, 마셜제도,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스페인, 잠비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협력 기관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UN),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G2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아프리카연합, 재무장관연합(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등이 있다.

이 태스크포스의 사무국은 유럽기후재단(ECF)이 운영하며, 로랑스 튀비아나 ECF 대표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재무부 전 직무대행 이스마일 모모니아트가 공동으로 이끌고 있다.

IATA는 보도자료를 통해 GSLTF의 제안이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Cont. page 4]*

기후 피해 세금, 프리미엄 항공 여행에 부과 검토

[Cont. from page 3]

IATA는 항공 산업이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GSLTF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GSLTF 발표에서 인용된 네덜란드 기반 환경 컨설팅 회사 CE Delft의 추정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 회사는 프리미엄 항공 승객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간 780억 유로(약 900억 달러) 이상이 거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2024년 전 세계 항공산업의 추정 수익 324억 달러의 약 세 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IATA는 항공 산업의 구조적으로 낮은 순이익률(2024년 기준 업계 평균 약 3.4%)이 모든 산업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논의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ATA는 항공사들이 이미 수조 달러 규모의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에 투자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부터 2050년까지 약 4.7조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항공 산업이 전 세계 GDP의 3.9%와 8,650만 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전체 탄소배출량의 2.5% 수준을 책임지는 산업으로서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

IATA는 GSLTF가 제안한 항공세 인상은 항공업계가 장기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솔루션에 투자할 능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항공 분야를 위한 별도의 기후 재정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ATA는 GSLTF의 제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채택된 탄소상쇄 및 감축제도(CORSIA)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ORSIA는 산업 부문 중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탄소배출 관리 메커니즘으로, 국제 항공 분야에 적용된다.

IATA는 GSLTF에 참여한 국가들 대부분이 CORSIA 창설 당시, 국제 항공의 탄소배출 관리를 위한 단일 통일된 시장 기반 조치로 CORSIA를 지지했던 당사자들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연대 기금(levy)'과 같은 중복된 조치는 CORSIA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단절되고 비효율적이며 일관성 없는 정책 체계를 초래할 수 있다고 IATA는 경고했다.

IATA는 GSLTF 소속 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중복되는 조치 추진보다는 CORSIA의 성공적인 이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ATA는 또한 GSLTF가 비용 상승이라는 불가피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IATA는 GSLTF가 해당 세금이 자금을 지원하려는 국가들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모든 항공 여행객에게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평가한 바 없으며, 해당 기금이 어떻게 사용될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GSLTF는 이 제안을 프리미엄 항공 여행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시장이 항공 노선망 유지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리미엄 승객을 처벌하거나 항공업계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올해 약 50억 명의 여행객이 의존하는 항공 연결망의 구조를 뒤흔들 수 있으며, 항공사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IATA는 경고했다. 그 결과, 모든 항공 여행객과 항공 운송 물품에 대한 비용이 상승하게 되며, 필수적인 경제 촉매 역할을 하는 항공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 둔화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IATA의 윌리 월시 사무총장은 "항공 산업은 경제의 촉진자이지, 현금젖소(cash cow)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들은 항공업이 생존을 위한 산업이며 외딴 지역 사회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며, 지역 제품을 세계 시장과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업계 연간 수익의 세 배에 달하는 세금을 무심코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GSLTF 제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이 명확하지 않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세금은 대부분 일반 재정으로 흘러들어가며, 기후 변화 적응에 쓰이는 수익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월시는 "GSLTF는 연대 분담금이 일반 시민의 생계비나 가계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GSLTF의 권고안이 시행된다면 모든 항공 여행객의 비용이 오르게 되며, 이익보다 해가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항공산업에서 수십억 달러를 빼내는 것은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노선망 구조를 흔들어 항공 연결성을 훼손하며, 항공이 제공하는 필수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시는 마지막으로 "항공사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업계는 지속가능항공연료(SAF), 운영 효율화, 첨단 기술 등을 통해 탄소 순배출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 900억 달러 규모의 세금이라는 '복부 강타'를 가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항공 운송에 있어 GSLTF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항공사가 전 세계 사람과 기업을 연결하며 번영을 창출할 수 있도록 SAF 생산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7/14/2457692/climate-damage-tax-eyed-premium-air-travel

필리핀 노동부, 기업에 임금 왜곡 시정 촉구

July 14 , 2025 | Gerard Naval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어제 민간 사업장들에 임금 왜곡(wage distortion)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국가자본지역(NCR) 지역 삼자임금생산성위원회(RTWPB)가 발표한 최신 임금 명령이 오는 7월 1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화 인터뷰에서 비엔베니도 라게스마 노동부 장관은 "기업들은 임금 왜곡 사례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게스마 노동부 장관은 "예를 들어 NCR 지역삼자임금위원회(RTWPB-NCR)의 50페소 임금 인상을 보면, 임금 왜곡(wage distor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경영진은 임금 왜곡이 즉시, 그리고 적절히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게스마 장관은 임금 왜곡 해소는 사업장 내 노동자와 경영진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조정으로 인해 기존 직원들의 급여가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왜곡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라게스마 장관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를 해결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가능한 임금 왜곡을 바로잡는 것은 건전한 경영 실천이며,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임금 왜곡을 시정한다면 그것은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제1호 전국임금생산성위원회(NWPC) 자문에 따르면, 임금 왜곡은 법정 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장 내 직원 그룹 간에 고의적으로 설정된 급여 격차가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드는 상황을 의미한다.

NWPC는 모든 기업이 임금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임금 위원회로부터 지침과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RTWPB-NCR이 승인한 일일 최저임금 50페소 인상은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NCR의 비농업 부문 최저임금은 일일 645페소에서 695페소로 인상되며, 농업 부문, 종업원 15명 이하의 서비스 및 소매업체,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제조업체의 경우 608페소에서 658페소로 인상된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national-news/dole-urges-firms-address-wage-distortion/

CREATE 법에 따른 세제 혜택 대상 프로젝트, 1.5조 페소 돌파

July 14 , 2025 | Louise Maureen Simeon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기업 회복 및 세제 혜택 법(CREATE법) 제정 이후, 정부는 총 1조 5,000억 페소 규모의 1,500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Stock photo of a peso money bill.

Philstar.com / Jovannie Lambayan, file

내각 차원의 재정 인센티브 심의위원회(FIRB)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CREATE법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된 우선순위 사업의 총 투자 자본은 2024년 말 기준으로 1조 4,900억 페소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인 약 70%에 해당하는 1조 300억 페소는 FIRB에서 승인한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운송 및 물류, 제조업, 에너지, 경제특구 운영, 대량 주택건설, 관광, 보건의료 서비스, IT-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부문에서 추진된 약 58건의 대형 세제 혜택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4,666억8,000만 페소는 1,446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진흥기관(IPA)으로부터 승인된 것이다.

다음으로, 총 1,500개의 프로젝트는 인센티브 적용 기간 동안 약 209,897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부문이 우선순위 산업 중 가장 많은 승인 프로젝트를 차지했다.

[Cont. page 6]

CREATE 법에 따른 세제 혜택 대상 프로젝트, 1.5조 페소 돌파

[Cont. from page 5]

현행 법에 따라, 투자 규모가 150억 페소 미만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진흥기관(IPA)이 인센티브를 승인하고, 150억 페소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FIRB가 세제 혜택을 결정한다.

IPA에는 산업통상부 산하 투자위원회(BOI), 필리핀경제구역청(PEZA), 수빅만경제자유구역청(SBMA), 클락개발공사(CDC), 방사모로 투자위원회, 관광 기반시설 및 기업구역청(TIEZA), 바탄 자유항 관리청(AFAB), 아우로라 태평양 경제자유구역청(Apeco), 잠보앙가시 특별경제구역청(ZFA)이 포함된다.

CREATE법은 법인세율을 ASEAN 지역 수준과 비교 가능하도록 인하하였다.

또한 이 법은 보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재정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가 성과 기반, 유효 기간 명시, 목표 중심, 투명성 확보 원칙에 따라 부여되도록 하고 있다.

구조적 세제 개혁 하에 인센티브를 받는 프로젝트와 활동은 반드시 성과 지표를 충족해야 하며, 등록된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실질적인 경제적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7/14/2457693/projects-tax-perks-under-create-hit-p15-trillion

SEIPI: 전자제품 수출 전망 악화

July 15 ,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This photo shows a picture of U.S. Dollars.
STAR / Edd Gumban, file

미국의 관세 인상 관련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반도체전자산업협회(SEIPI)에 따르면, 미국이 필리핀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올해 필리핀 전자제품 수출 전망이 위협을 받고 있다.

어제 One News의 "머니 토크(Money Talks)" 프로그램에 출연한 SEIPI의 댄 라치카(Dan Lachica) 회장은, 애초 올해 필리핀의 전자제품 수출이 지난해 426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몇 가지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그 덕분에 낙관적인 전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460억 달러 수준인 2023년 실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관세 관련 조치는 실망스럽고, 우리의 낙관적인 예측을 조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라치카 회장은 말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필리핀의 전자제품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의 176억 달러에서 소폭 증가한 178억 달러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필리핀산 제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필리핀 수출품에 대한 17% 관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SEIPI의 댄 라치카 회장은 이러한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이는 베트남에 대한 필리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우려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은 반도체 수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나라다.

"우리는 17%였고, 베트남은 그보다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와 수출 측면에서 필리핀의 가장 큰 경쟁국 중 하나입니다," 라고 라치카 회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관세 인상은 놀라운 조치라고 밝히며,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필리핀과의 무역 적자는 베트남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필리핀과의 상품 무역 적자는 49억 달러였으며, 같은 해 베트남과의 무역 적자는 1,235억 달러에 달했다.

라치카 회장은 전자 부문 내 일부 제품들이 이번 관세 인상의 적용을 면제받지 못했다는 점 또한 우려된다고 밝혔다. *[Cont. page 7]*

SEIPI: 전자제품 수출 전망 악화

[Cont. from page 6]

필리핀 정부가 이번 주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해 무역 대표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SEIPI의 라치카 회장은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도 오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크리스티나 로케 무역산업부 장관은 One News의 "Thought Leaders"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신호이며, 우리가 진심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로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녀는 "이는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일단 좋은 무역 관계가 형성되거나 FTA가 체결되면, 해당 국가에 우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라치카 회장은 전자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 기업들에 대한 일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유입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한 "심지어 중국도 자국에서 필리핀으로 투자를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그리고 다른 모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라치카 회장은 말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7/15/2457961/seipi-outlook-dims-electronics-exports

수표 발행에 대한 새로운 규정 엄격히 시행 중

새로운 양식 규정을 따르지 않는 수표는 은행에서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July 01, 2025 | Micah Avry Guiao | Spot.ph

Photo from Canva

SPOT.ph — 아직도 수표로 결제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새로운 수표 양식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표가 입금 또는 청산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필리핀결제청산공사(PCHC)는 2024년 5월, 수표의 형식을 표준화하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수표 디자인을 도입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수표 양식은 날짜, 금액, 서명란에 상자 형태의 구획을 두어 보다 체계적인 배치를 갖추고 있으며, 자동 시스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페소 기호(₱)의 위치도 변경되었습니다.

전환 기간 동안 은행들은 구형 및 신형 수표 양식을 모두 받아주었지만, 2025년 7월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엄격히 시행됩니다. 이는 새로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수표는 무효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수표 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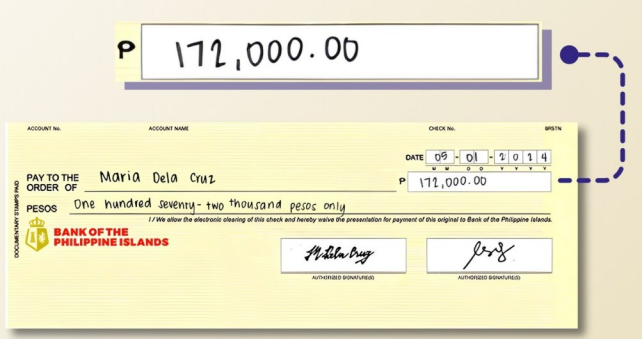


Photo from Facebook/BPI

수표 작성 시 오래된 습관은 버리고,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하세요:

날짜 형식

수표에 기재하는 발행일자는 반드시 **숫자만 사용하고 하이픈(-)** 으로 구분된 MM-DD-YYYY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슬래시(/), 점(.), 또는 월을 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올바른 예: 05-01-2024

✘ 잘못된 예: 05/01/2024 또는 05.01.2024

금액 (숫자 표기)

금액을 숫자로 적을 때는 **표준 숫자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즉, **백만 · 천 · 백 단위는 쉼표(,)**로 구분하고, **센타보(소수점 이하)는 마침표(.)**로 표시해야 합니다.

✔ 올바른 예: 172,000.00

✘ 잘못된 예: 172000

[Cont. page 8]

수표 발행에 대한 새로운 규정 엄격히 시행

[Cont. from page 7]

수취인란 (Payee Line)

수표에는 반드시 **하나의 수취인만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취인은 개인 이름, 회사 이름 또는 **"Cash"** 일 수 있습니다.

예: "Maria Dela Cruz or Cash", "ABC Corp. and/or Cash" 등과 같이 **두 명 이상을 기재하거나 혼합 표기하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올바른 예: Cash
✘ 잘못된 예: Juan Dela Cruz and Cash

금액 (문자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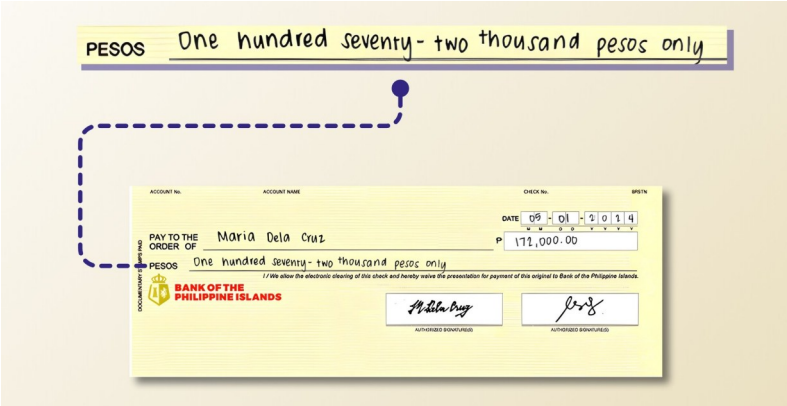
이제 수표에는 **숫자로 쓴 금액을 문자로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이 줄에는 숫자란에 적은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한글 또는 영어로 철자**로 써야 합니다.

보안을 위해 "only", 별표(*) 또는 대시(-) 같은 기호를 앞뒤에 덧붙이는 것도 허용됩니다.

예: **"One hundred seventy-two thousand pesos only."**

이 부분을 비워두거나 숫자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수표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명란 (Signature)

수표 발행인의 서명은 수표의 **유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서명란 하나에 **두 명의 서명자**가 함께 서명해도 괜찮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보다 **규정이 엄격하지 않으며,**

서명이 서명란을 약간 벗어나더라도 입금 및 청산 과정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명이 은행에 등록된 서명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Source: https://www.spot.ph/newsfeatures/money/these-check-writing-mistakes-could-get-yours-rejected-a5229-20250701-dyn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info@kccp.ph | www.kccp.ph

FIRST GRAND TRI-CONTINENT GOLF CHALLENGE
2025
Scan to register!
TOURNAMENT FEE:
INCLUDING GREEN FEE, CADDIE FEE GOLF CART (SHARING), LUNCH GIVE-AWAYS AND 1 RAFFLE STUB
P10,000 PER PLAYER
NOTE: 30% DISCOUNT FOR MSGCC MEMBERS
JULY 30, 2025
THE MANILA SOUTHWOODS LEGENDS COURSE
Gold Sponsors:
BDO
PLDT Enterprise
Play for your Team and have a chance to win a RT ticket to North America and 1 RT ticket to Asia sponsored by:
Philippine Airlines
The Heart of the Filipino
Silver Sponsors:
Marubeni
METRO RAIL TRANSIT DEVELOPMENT CORPORATION
MGP
SPDS Inc.
Golf Cart Sponsors:
ASCENDION
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THE ALL AMERICAS TEAM
THE ALL ASIA & PACIFIC TEAM
THE ALL EUROPE TEAM
Bronze Sponsors:
park inn by Radisson CLARK
Mondelēz International SNACKING MADE RIGHT
Organized by: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in the Philippines
Logistics, Raffle & Give-away Sponsors:
Dusit Thani MANILA
GATORADE NO SUGAR
Supported by:
LOVE THE PHILIPPINES
Jollibee Foods CORPORATION
In cooperation with:
British Philippines
eccp
JCCIPI
KCCP
Media Partners:
BusinessMirror
Pilipino Mirror

Festive Feels, Amazing Deals!
Sunlight AIR
GRAND TRADE FEST
CEBU
2025
July 25 - 27
The Activity Center
Ayala Center Cebu
Admission is FREE
SIARGAO
CORON
Supporters:
Mactan Cebu International Airport
Aboitiz InfraCapital Cebu Airport Corporation
DITO BUSINESS
Event venue:
ayala center cebu
Event partners:
BPI
GCash
Sunlight
STARR INSURANCE
FHG
The Hotel Elizabeth
FERSAL HOTEL
The Hotel Elizabeth Resort and Villas San Vicente, Palawan